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7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9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96) 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2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7

12.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8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국회 직원, 교육부차관님과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집 원아와 13명의 학생, 교육청과 국립대학 직원 여섯 분도 계셨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야 할 첫 회의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0시1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5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전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시하고 성폭력방지법상 삭제를 위한 지원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과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계교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히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차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후속 안건인 청문회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관님 회의장에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난해 원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는 감사요구안과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두 66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안건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왕성한 입법 활동의 결과로 약 250건의 법률안이 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도 꾸준하고 성실한 법안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법안소위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심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겠습니다.

10.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0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내용과 도입 추진 과정,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청문회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 발언하거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야 간사님들 한마디씩 좀 해 주시지요.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민정 위원** AI 디지털교과서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이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장관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는 사안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장관이 직접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다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입법부인 여당과 야당 모두를 다 모독하는 행위이고요. 당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을 높렸던 의원들은 야당, 민주당만 있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동의를 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단독 혹은 독단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걸 본회의장에서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히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탄핵정국이고 사실 관리내각 차원에서 바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은 저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찌 됐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입법부가 입법을 확정했다는 취지인데요 장관이 그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청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을 때도 문제라고 보지만, 특히 지금 관리내각에서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우 강한 유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정훈 간사님 먼저, 조정훈 간사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다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을 제안받고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같이 동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찬반의 입장들이 비교적 날카롭게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 과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고 일부 국민의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관계 그리고 검증된 이론과 논문에 의해서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안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장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반대토론을 했고 저희 당의 입장으로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서로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성국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세 가지 의사진행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 건도 있고 중인 채택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청문회 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정성국 위원 청문회를 실시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사업인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우리 장관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극일부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당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그 법안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대부분 다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교육자료로 남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꾸하시는 말씀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꼭 위법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은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혹시 위법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요?

○정성국 위원 그런 성향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지요. 단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으시고. 제가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달지는 않아요. 위원님들이 각자의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토를 달지 않지만 위법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는 거고 그냥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이 확정됐는데 관리내각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입법부 일원으로서는 유감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분야가 자료 요청, 이것 의결하면 다음에 중인 건입니다.

11.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1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42개 기관 대상 655건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구받은 기관이 14일 화요일 정오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삼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12.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29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2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이 협의하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3명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성명, 신문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실장 김정규** 지금 지시에 따라 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 한번 간사님들한테 여쭤봐서, 배부해도 되는지.

○**행정실장 김정규** 아직 명단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배부할까요?

○**문정복 위원** 예, 배부하고 저희가 조정을……

○**위원장 김영호** 예, 해도 되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 명단이 완전히 협의된 게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알고 있어요.

○**조정훈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프린트를 지금 배포해 드리는데요 한번 쭉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말씀하시지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배부받으실 증인·참고인 출석명단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동의할 수 없는 증인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 교과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가능 없이, 특정한 입장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AI 기술과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또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유은혜 장관 시절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AI 디지털교과서?

○**조정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과서를?

○**조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발언록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유은혜 장관을 포함한 그때 당시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했던 분들을 증인 채택했는데 민주당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유감을 표하고요.

또 한 가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소민이라는 워싱턴대학교 교수를 증인 채택하셨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전에 워싱턴 대학에서 테뉴어를 받고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중인 채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으로 이 중인을 채택하려고 하시는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걸 보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관련 연구논문을 썼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소위 아빠 찬스를 썼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연구논문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논문의 디지털교과서는 오늘의 주제, 앞으로 17일 날 열릴 청문회의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른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보면 저널 오브 마케팅과 마케팅 리서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부분에서 이 논문이 게재됐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고 인정받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 논문이 게재됐다는 것은 최소한 학문적으로는 그 방법론에서 그리고 결론에서 인증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뵈 적도 없슴니다만 알지도 못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공부를 하고 해외 유수한 대학에서 테뉴어를 받고 학문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연구 활동과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중인 채택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향후 학문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분을 청문회로 불러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지금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오지 못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송달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분을 그냥 중인 채택하고 송달도 불가하고 오지 못하는, 약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 주기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의 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현직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비판은 정말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얘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소민 워싱턴대학 교수가 정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중인으로 와야 될 만큼 중요한 무슨 행위를 했다거나 물증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소민 교수에 대한 중인 채택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에 이소민 워싱턴대 교수를 중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민 교수는 아주호 장관이 KDI 교수 시절에 정영식 교수와 함께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을 쓴 연구자입니다. 이소민 아주호 정영식, 이 세 명이 쓴 논문의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디지털교과서로 교육하면 효과적이고 성적이 오른다,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 사용된 원데이터를

보면 정영식 교수가 그 전에 교육부 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추출해서 쓴 것인데 원래 연구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한테 디지털교과서의 효과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이유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이고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과 꼭 맞게 연구결과가 정반대로 바뀐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 공동 연구자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자인 이소민 교수 정영식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도 이주호 장관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채택되게 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채택이 안 되면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확신을 꼭 맞게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이용해서 아시아교육협회 시절 교육 격차 해소나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안 쓰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입하면서, 모두가 강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게 하려고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소민 교수를 이주호 장관의 장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 논문의 공동 저자로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로서 증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청문회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신청한 것이므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사실 앞의 발언에서도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거부권을 현재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듯한 의미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논문의 경우에는 그 학회지에서 학회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검증조차도 지금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현재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하게 됩니다. 학회 논문의 경우 그 연구의 데이터와 그리고 결론의 유추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그들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의 목적이 과연 AIDT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논문이 정말 적절한 결론을 끄집어낸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몇 마디 질문으로 과연 그런 목적을, 결론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회가 지나치게 자신들의 역량을 과신하는 것이고 학문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논문 거기에서 가져올 게 있다라고 하면 논문을 보면 되는 것이지 논문을 쓴 저자를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 주제 자체가 그 논문의 적정성에 대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옳

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증인들을 보게 되면 다 이 AIDT의 도입과 관련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연수를 받고 했던 교사들이 두세 분 들어있는 것 이외에는 다 관련된 분인데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호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것과 연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번에는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조정훈 위원님과 김민전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발언할 생각은 없었는데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디지털교과서였다 이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 논문 쓰듯이 자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돼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처음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봤고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2023년 2월에 처음 교육부 보고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교육부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내용, 어쨌든 8년간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 이후에 적용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아주 빠르게 개발이 되고 바로 적용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유보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반대한 적이 없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하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소민 교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소민 교수와 관련된 내용은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고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께서는 이주호 장관의 딸이기 때문에 요청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논문의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요청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딱 지금 시점에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 논문이 나오고 이주호 장관님이 장관이 되고 나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논문입니다. 혹시 논문을 읽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논문은 마케팅 리서치,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는 논문이고. 그래서 세 분의 공동 저자의 논문은 굉장히 홀륭한 논문입니다.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할 만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 학술지가 그냥 허접한 학술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다 완벽하게 번역해서 볼 수 없어서 똑같은 코넬대학, 아주호장관의 후배인 코넬대학 재학생이 지금 저희 의원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번역을 좀 해라, 코넬대학 선배가 쓴 논문을 코넬대 후배인 우리 비서관이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말씀하셨던 대로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업관심 및 학업기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게 됐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는 내용도 일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논문이 문제가 되는 거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안에는 바로 AIDT와 관련된 혹은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그런 기술개발, 기술사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AIDT 혹은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건 미국에 대한 내용이지요. 아직 한국은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미국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만들었던 2023년 2월에 나왔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영국과 에스토니아 그리고 유럽에 있는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성과들을 가지고 내용이 나왔던 거고 미국도 그 안에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AIDT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그 교육부가 만들었던 내용에 있어서 바로 기술개발의 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담겨 있지는 않았고 그 뒤에 만들어졌던, 그 뒤에 6월 달에 만든 보고서에는 바로 이 AIDT와 관련된 기술개발들을 교육부가 어젠다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검인정 과정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논문 안에 바로 그 기술개발과 관련된, 바로 미국에 있었던 AIDT 관련된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논문을 안 읽어 보셨으면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겠구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교육부가 AIDT를 계속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AIDT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핵심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 학생들이 AIDT 관련 디지털교과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면 그 기술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경제적 이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바로 교육부가 형식적으로는 학생들 맞춤형 교육으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 김영호 줄여 주시지요.

○김준혁 위원 줄이도록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과 관련된, AIDT 관련된 기술개발 업체들의 경제적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아주호 장관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던 혹시라도 AIDT나 혹은 디지털 관련된 업체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들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이 논문 과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빨 이소민 교수와 이주호 장관과, 그때는 교수 시절인 이주호 교수와 정영식 교수가 근거를 마련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AIDT를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관련돼서 혹시 좀 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국민적인 상식 또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의 딸이,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되어서 부녀가 같이 논문을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 한쪽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소민 교수, 이소민 교수가 스테파니 리(Stephanie Lee)인데 이중 국적인가 봐요. 이소민 교수가 단독으로 논문을 썼다 그러면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올릴 수가 있었느냐, 이 논문을?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 장관의 도움이 없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이소민 개인의 논문을 올릴 수가 있었느냐? 결국은 워싱턴주립대학교 취업할 때 이것이 아주 주요한 스펙이 됐다라는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이소민 교수에 대한 중인 채택을 너무 터무니없이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여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것을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하시기보다는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설득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지금 간사님이 먼저 손을 들어 주셨고, 사실 문정복 간사님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정훈 위원님 하시고 문정복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이 중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일단 김준혁 위원님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 업체들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건 그 논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담론이지요.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은 그 논문 자체가 결론이 바뀌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유은혜 장관은 디지털교과서를 시작했지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논문은 AI가 아니고 디지털교과서 논문입니다. 따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문의 결론이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한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 디지털교과서 업체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청문회의 역할에 맞지 않다.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으니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교육 격차하고는 충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논문 쓴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가 저널 오브 마케팅(Journal of Marketing)에 쓰는데 장관 없었으면 쓸 수 있겠냐, 그것은 더욱더 이번 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

○위원장 김영호 아빠 찬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윤석열 검사 같았으면 이것 털면……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이주호 장관 청문회를 하시든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이것 지금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라면 저는 백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기억하는데,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위원장 김영호 저는 안 했는데.

○조정훈 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

○위원장 김영호 저는 안 했다고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으시다면 그건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거지. 지금 저희가 동의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를 적용하는 거고.

백번 양보해서 김준혁 위원님의 그 주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산업이 너무 커졌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그리고 미국의 경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논문의 저자를 불러서, 그것도 미국에서 학문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 한마디 두 마디 때문에 오라 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정복 간사님 다음에 정성국 위원님.

○문정복 위원 정치인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너무 알아요.

저희가 이소민 씨 중인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포함 저희 위원님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채택해야 된다 좀 보류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중인 채택 목록에는 올렸는데.

마지막 회의 때 위원장님 포함 다수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저한테 반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셔라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정치인들의 자녀를 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와 조원 씨에 대한, 이건 거의 사람의 인격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거였지요.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들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부장관 청문회 때 따님인 예슬 씨가 예일대 교수로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의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거의 정말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 교수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소민 씨의 증인 채택이,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연구논문이 주제고 불러서 이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원장님 포함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불렀을 때 실제로 그렇게만 굴러가겠느냐? 이게 장관의 딸이어서 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로 거의 조민 씨나 조원 씨나 변예슬 교수처럼 정말 난도질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다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 위원장님께서 정말 크게 결단을 하셔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이소민 씨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조금 보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마녀사냥 당하듯이 하는 이런 세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물꼬를 민주당이 트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모여서 한 거고요. 이 증인 채택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위원님들께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이러한 대승적인 포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당이 되었든지, 정부는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갑을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것, 공수가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국무위원이나 청문회를 하게 되는 공직자들의 자녀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더 이상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소민 씨의 증인 채택의 건은 좀 보류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이주호 장관께서 권한대행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재고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떤 것이 상생의 정치인지 한 번 더 진솔하게 고민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꼭 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입장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당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이소민 씨의 증인 채택은 위원장님께 좀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을 잘 주셨는데 사실 정치인의 자녀라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 청문회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문제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아까 조국 대표 이야기도 나왔지요. 당시 윤석열 검사로 인해서 정말 한 가정이 멀문지화 당했는데 그런데 이소민 씨를 불렀을 경우 이 청문회가 너무 잔인해질 수 있다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어저께 조정훈 간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금 워싱턴주립대 교수로 잘 재직 중이신데 청문회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또 현지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향후에 학자로서의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아까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술지에 부녀가 이름을 같이 공동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기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당 위원님들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정복 간사님 당연히 여당 위원님들은 중인 채택하지 말자는 취지셨고. 아까 우리 회의 때는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고 우리 오늘 토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여당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경청해 보자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소민 교수 부분은 여야 합의로 일단은 중인에서 빼고, 다만 이주호 장관께는 궁금해하시고 이 분야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주호 장관이 청문회 때 나오시면 역시……

○조정훈 위원 정영식 교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 저자에는.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딸은 워싱턴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사실 송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확정되면 따님한테는 바로 연락이 가서 의지만 있으면 청문회 중인으로 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 계시니까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여당 위원님들의 요청 잘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인에서 이소민 중인은 빼 주십시오.

하여튼 정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절제해 주시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여야가 이소민 중인을 놓고는 매우 대립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오늘 품격 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소민 교수는 중인에서 빼 주시지요.

○행정실장 김정규 예, 논의하신 것 관련해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저 추가 의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중인 채택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조국 대표님도 이 사안 때문에 옥살이하고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사실 굉장히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대승적으로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중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신 거긴 한데 그러나 이 안에 문제가 있는지는 조목조목 한번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정훈 간사님 디지털교과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교과서를 개발해 본 개발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데요. 그때는 이게 AIDT가 분명히 아니고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저작물이라 그래서 콘텐츠를 교과서로 개발을 하면 그것을 입체적으로 영상이라든지 PDF 파일로 전자로 넘길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그걸 디지털교과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AIDT랑은 완전히 성격상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문회를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라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생각하실까 봐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아까 자료제출

건은 지나기는 했지만 그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안 되면 2차 3차에 걸쳐서도 계속 청문회를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모조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다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대학교 등록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의대생들 수업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장관님이 계속 본인이 이렇게 시작한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만 거의 몰입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차제에 예산 관련된 것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김진표 의장님 당시에 이것이 세출 관련 예산인 것을 세입 예산 부수법률안을 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5000억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3년 동안 1조 5000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독료가 빠진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게 되는 건데 이걸 누가 검증하는지도 분명하게 한번 짚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부 조직 개편된 것 여러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고영종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역교육청의 정원과 재정을 관할하는 교육자치국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치국은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책임교육정책실 산하로 개편했습니다. 고영종 실장님 밑으로 들어가게 된 셈인 건데요. 이게 혹시라도 디지털교과서를 압박하겠다는 이주호 장관님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을 고영종 책임교육실장님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연유인지 나중에 한번 캐묻고 싶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가 책임성과 투명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해서 중인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말씀 중에 청문회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청문회 준비 잘해 주시고요. 또 교육부는 청문회 관련된 모든 자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김영호 지금 김준혁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그다음에 진선미 위원님 이렇게요.

○김준혁 위원 아주 짧게.....

○위원장 김영호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준혁 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 이주호 장관님께 우리 야당 위원들이 AIDT 실물을 본 적이 없다, 교육부가 왜 안 보여 주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가 예전에 만들었던 데모 영상만 보고 있지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부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도 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는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과서로 채택하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차관님, 왜 그것 지금까지 제시를 안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마 일정이 서로 저희가 안 되셔 가지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일정? 그러니까 일정 조율에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벌써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낸 것은 교육부가 이것은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김준혁 의원님 실로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는 내용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 시간 안에 발언을 해서 회의가 좀 합리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발언 내용이 주제와 무관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하는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여야 간사님들 합의해서, 한 2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 것도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세요,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진행발언도 규정된 시간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압박이 오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인데. 저는 아주 짧게요.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참고인으로 한 분 정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분이 원래 중인 19명, 참고인 13명인데요. 아까 1명, 이 소민 교수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중인은 18명, 참고인은 13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택된 중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이든 뭐 요구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정을호 위원 지금 차관님 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 빌려서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대학에서 지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서강대나 국민대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차관님께 이야기해서,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달라는 요청과 그다음에 교육부가, 쉽게 말하면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대학교에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부분들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또 한 가지가 지난번 1월 1일 날 저희가, 모든 분들이 뜨악했겠지만 탄핵정국이라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책이에요. 저번에 저희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님들 같이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이고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인데 이 책을 영어본으로 번역해서 해외에 아마 비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위원장 김영호 보도가 되었지요?

○정을호 위원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니까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유해한 한국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책을 보니까 일본의 토지 수탈을 미화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판매 금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 도서 발간 즉각 취소하는 부분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회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주실 것……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도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워낙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연계시키는, 그걸 완화를 시켜 가지고 전년 대비 90% 수준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는 이 취지에 부합되게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5.49%가 최종 3년 이내의 인상을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가 실무팀들하고 저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경제 사정의 어려움들을 고려해 가지고 동결 기조를 유지해 주시되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연계시키는 부분으로 문제를 해소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등심위의 진행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한국사 관련 영어 번역본과 관련돼서는 한중연에서 바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고 그 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가 모니터를 해 가지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마지막 간사님 하시지요.

○김준혁 위원 오늘 세 번째 발언이라 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주항공 사고 관련해서 대학생, 그 유가족들……

○위원장 김영호 제가 그 말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준혁 위원 1년 장학금 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합의된 그 내용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동덕여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만약에 동덕여대 이사진과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객기 참사와 관련돼서 희생자 가족 중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문제를 신속하게 교육부가 판단하고 결정해 주신 점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랜만에 교육부 칭찬을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흡족한데요. 정말 희생자들에게 힘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원칙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말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만 첨언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동덕여대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로. 문자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업무방해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100%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까지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말씀 드리고요. 정말 문자 보내지 마세요.

다만 교육부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가 동덕여대 관계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학교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국회의원들이 학내 문제까지 사실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사립대학교의.

그런데 감사의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육부가 인원을 정리해서 파견을 해서 동덕여대가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자 이렇게 보내신다고 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문자 그만 보내라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문자를 많이 보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관심이 더 생기셨지만 문정복 간사님 말씀처럼 동덕여대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하여튼 저희를 좀 믿어 주시고 또 교육부를 믿고 이제 문자를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이슈가 많은 중에 동덕여대가 가장 으뜸이잖아요? 교육부가 조금 안일하게 이 사건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있으니까 동덕여대를 적극적

으로 좀 관여를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보신다고 하시니까 문정복 간사님처럼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하여튼, 요새 저희는 문자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덕여대 분들이 문자를 더 해 주셔서 1시간에 수천 개 이상 받는 건 기본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방전은 11시 전에 항상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처럼 저희 국민의힘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그 자율성이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법이 강제한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동의하고요. 또 문정복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부에서 판단해 보시고 저희 국회가 교육부를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달성하셨으니까 이제는 학업에 전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월 9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 5건이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8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AIDT 추진 과정 및 정책 실효성 질의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규를 무시하고 입장문을 낸 경위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AIDT 교육자료 관련 입장과 정책 방향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AIDT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관련 질의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AIDT 대비 교원 양성책, 총장협의회 성명 발표 경위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AIDT 검정 과정 전반
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취약계층 교육 효과 검증내역 관련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사장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테크빌교육 대표)	AIDT 추진 과정 전반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장 (타임교육 C&P 대표)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문재인 정부 디지털교육 관련 질의

참고인(13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AIDT 연수 교사 평가, 교육감협의회 건의문 발표 경위
김숙영	학부모	교과서 지위 박탈 관련 현장 AIDT 선정 압박 등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AIDT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부족과 위험성 확인
유영의	교사	AIDT 교육효과 확인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DT 도입 법률 자문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서지섭	교사	AIDT 교육현장 실효성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AIDT 검정 및 가격
박찬용	(주)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AIDT 행사 입장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대 정부 AI 도입 노력
조현식	부산 포천초등학교 교사	학교현장 변화 및 준비
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	인프라(네트워크) 준비
김태호	초등교사	AIDT 효과성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민천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2인)

김대식 김용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보고사항】

○의안 회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

1월 20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

이상 6건 11월 21일 회부됨

직업교육법안

(2024. 11. 2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

11월 22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2024. 11. 2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

이상 3건 11월 26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2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8)

이상 4건 12월 2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

이상 4건 12월 6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

12월 10일 회부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5)

이상 3건 12월 11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2024. 12. 13. 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2)

이상 2건 12월 17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3)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8)

12월 19일 회부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7)

이상 3건 12월 20일 회부됨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2024. 12.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8)

이상 7건 12월 23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9)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4.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이상 3건 12월 26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6)

이상 5건 12월 27일 회부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3)

12월 30일 회부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5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용태 의원·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9)

이상 3건 2025년 1월 2일 회부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1월 6일 회부됨

○ 청원 회부**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4. 12. 4. 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12월 5일 회부됨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12. 13. 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12월 16일 회부됨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

(2024. 12. 19. 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12월 20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024. 11. 05.	34981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11. 26.	35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12. 03.	350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12. 03.	35021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24. 12. 31.	35131
장애인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2024. 11. 26.	34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12. 31.	34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12. 31.	348